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Value Orientation about Family Life between the Older Generations and College Sudent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김 일 명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Kim, Il Myung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김 명 자

Dept. of Home Management

College of Home Economic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im, Myung Cha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고찰

1. 가족 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
2. 가족 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고찰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및 가설
2.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측정 도구의 작성

3. 조사 대상 및 자료 처리

IV. 결과 및 해석

1. 남·녀 대학생과 남·녀 기성 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2.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value orientation about family life between the older generations and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the older generations and college students in Seoul. Among them 920 data were obtained. To obtain the family value scale, item analysis through pearson's correlation and factor analysis were used in pretest,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ile, mean, t-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 1) Male college students show traditional tendency and female college students show modern tendency, especially sex-role attitude, ancestor worship attitude, patriarchy attitude.
- 2) Male and female of the older generations show traditional tendency.
- 3) The older generations show traditional tendency, college students show modern tendency, especially sex-role attitude and kinship attitude.
- 4) Male adults and male college students show traditional tendency.
- 5) Female adults show traditional tendency, female college students show modern tendency. In female, generation gap is more serious than males.
- 6) The most influential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family value consciousness of the older generations are the religion and education. In case of college students, sex, major, religion, family income, grown-up area effect on their value consciousness about family life. Based on the above findings, we should develop school education and many social programs to reduce the generation gap.

I. 서 론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질서에 기반한 우리의 전통사회가 이차대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사회, 정치, 경제의 여러 영역과 수준에서 겪어온 변동은 매우 엄청나다. 특히 60년대와 70년대에 밀어닥친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사회적 변동은 실로 큰 것이었다(박영신 1984, 261-265). 따라서 우리의 기존 사회제도와 고유한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전통 사회제도에 대한 가치의식도 변화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는 전통적 가치의식과 근대적 가치의식이 공존하는 혼란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는 전통적 의식이, 또 다른 경우에는 근대적 의식이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의 변화를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련시켜 연구하려는 데에는 가족이 하나의 사회체계로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김명자 1985, 140). 사회의 변화는 새로운 가치의식과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고 젊은세대는 이에 대한 감수성이 빠르나 부모세대는 전통적인 것에 집착한다. 그러므로 두 세대 사이에는 행동이나 판단의 기본이 달라지며 그들 사이에 통

용될 수 있는 규범이 감소된다(이정숙 1977, 31). 가치지향에 있어서도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전통주의나 운명주의를 대신해서 합리주의가, 집합주의를 대신해서 개인주의가, 특수주의를 대신해서 보편주의가 권위주의를 대신해서 평등주의가 지배적인 가치의식으로 대두되며(임희섭 1986, 41) 이러한 가치의식이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개인이 그 사회문화 가치의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그가 속한 최초의 집단 즉 가족을 통해서이고(정원식 1969, 120) 가족관계 중에서도 가치의 전달과 효과가 뚜렷한 것은 부모·자녀 관계로서 자녀에게 있어 부모는 최초의 관계이므로(Bossard & Boll 1966, 6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은 강력하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사회적 태도, 신념, 가치 등을 습득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분화되고 가족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회전문 기관의 출현으로 인하여 부모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가치의 전달이 기정사실화 될 수 없다는 이론도 제기 되었다(Furstenberg 1971, 595-603).

특히 오늘날 한국의 가족은 형태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치의식의 면에 있어서도 신·구 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있다. 또한 세대간의 가치체계도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세대간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은 세대간 가치의식 연구뿐 아니라 바람직한 가족생활의 방향 제시를 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제까지의 가족 가치의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 집단, 주부 및 남·녀 고등학생 등 동시집단(cohort group)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세대간 비교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변화가 급격한 시기에는 관념, 이상이 행동에 앞서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현존 질서의 담당세력인 기성세대와 미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대학생 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지향성과 그 차이점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족생활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에 유용한 시사점을 함과 동시에 이에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

전통이 어느시대의 전통을 의미 하느냐에 따라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교를 국시로 하고 父系線을 주축으로 하는 가족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향했던 조선중기 즉 17C 중엽을 그 상한선으로 삼고자 한다. 17C 중엽 이전까지만 하여도 가족형태, 혼인생활의 장소, 양자제도, 제사, 재산상속등의 면에서 볼때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는 家父長 가족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노비와 토지 상속등 재산상속에서도 아들과 딸 사이에는 차별이 없었으며, 특히 제사에 있어서는 아들이 없으면 딸이 지내기로 되어 있었다(최재석 1983. 527-530). 많은 分財記를 분석한 결과 조선초기에는 딸, 아들의 출생 순서대로 기재되고 자녀간에 재산을 공평히 분배하는 것이 내용이고 외손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 경우도 적지 않다(송준호 1980, 118). 또한 아들이 없더라도 딸이 있으면 양자를 들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제사 계승을 위한 양자제도는 보편화 되지 않

았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윤리면에서나 관습면에서 조선 중기 이후에 비하여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의 가족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획기적인 변화는 가부장 가족의 형성으로 이는 자기파의 정치세력 강화를 위하여 친족집단을 강하게 형성한데서 기인한다. 주자학에 따른 가족관계가 양반 지배층 뿐만 아니라 농민층에 까지 적용되는 것이 지지 되었으며, 이러한 확대는 조선조 중기 이후 지배 계층간의 갈등이 노출되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하여 지방에 까지 파급되어(조옥라 1986, 13) 유교적 가치의식이 民風化되기 시작하였다(조혜정 1986, 84). 가족의 화목은 가족 성원의 인격의 상호존중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하의 신분질서를 철저히 의식함으로써 유지되었다(최재석 1982, 223). 김태길(1982, 164-165)은 한국인의 가치의식의 일반적 특색을 논하면서, '가족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고 내지 행동의 경향'을 그 첫번째 특성으로 들고 있는데, 가족주의를 '가족에 대한 애착 내지 관심이 다른 의욕과 동기를 압도하고 행동의 주도권을 잡은 생활태도'로 규정하고 이러한 가족주의적 생활태도는 가족의 번영과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므로 한편으로 개인주의와 대립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와 대조를 이루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전통적 가치의식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중요시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가 '근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19C말 문호를 외국에 개방한 시기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근대의 출현과 더불어 근대화론이 발생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황성모 1986, 64). 근대적 가치의식이라 하는 것은 서구로부터 한국에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변화는 해방이후라 볼 수 있다(이광규 1984, 316). 이때, 변화는 급격하였는데, 이는 비교적 늦게 근대화가 추진된 사회에서는 근대화로의 전환이 외부로부터 행해졌기 때문에 변혁 그 자체는 보다 더 급속하고 급격할 수 밖에 없다는 Black(1976, 23)의 견해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Weber는 근대사회의 특징적 양상에 대하여, 다수의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조직체가 있으며, 기능적으로 특수화되고 문화적으로 지향된 결사체들간에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친족관계와 집단의 중요성이 약화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Eisenstadt 1983, 8에서 재인용) 이것은 전 문화된 사회에서의 가족의 결속이 약하면 분해되고 말 것이라는 Durkeim의 견해(Adams 1980, 94에서 재인용)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회적 양상을 배경으로 현대사회에서의 가족관계는 그 구조의 중심을 부부 관계에 두며 남·녀 평등의 이념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실성을 정당화 하고 있다. 즉 근대적 가치의식은 집단으로서의 가족보다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녀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가치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가치의 혼재속에 가치의식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으며 가족이 개인의 삶에 절대적이며 유일한 집단으로 존재해온 우리의 전통문화를 고려한다면 가치의식을 재정립하는데 있어서 가족주의의 수정은 그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Adams(1980, 424-425)의 가족의 미래에 대한 언급에서 가치의식이 점점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아실현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개인적인 행복에 관계되는 면이 점점 더 강조된다고 지적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문제는 이러한 신·구 가치의 조화가 얼마나 무리없이 이루어지는가에 그 관건이 달려있다 하겠다.

2.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變因 고찰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부권제, 효, 성역할 태도, 조상숭배등을 중심으로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연 령

이 연주(1984, 109)는 부권제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근대적 태도를 보였으며, 孝에 관하여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 태도를 보여 연령에 따라 비일관적인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박숙자(19

78)는 성역할 태도는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더 전통적이라고 하였으나 변화순(1980, 50)은 연령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대한 일률적인 변화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는 연령 그 자체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하리라 추측 되는데 Allport-Vernon Scale을 도구로 하여 가치의식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를 한 Kelly(1955, 659-681) Bender(1958, 41-46)등의 연구에서 가치의식의 변화는 연령 그 자체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문화적 환경의 반영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2) 세 대

세대는 일차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범주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으나 사회학적으로는 현존 질서의 담당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성의 성년세대와 기존질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청소년 세대가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임희섭 1986, 105-106). 김경신(1982, 110)은 어머니와 딸간의 가치전달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곧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청년 후기의 딸에게는 근대적 현실적 가치를 부여하고 딸도 청년 전기보다 후기에 근대적인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Bengston(1975, 358-371)은 3세대(조부모-부모-손자녀)의 가치의식이 조부모세대는 집합주의 쪽으로, 아들 및 손자세대는 연령과 세대가 낮아질수록 개인주의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 집을 밝히고, 이광규(1984, 313-350)는 교육수준으로 부모-자녀간의 세대 차이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자녀들의 학력이 높아져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가장권이 약화되어 간다고 하였다.

Brogen과 Kutner(1976, 38)는 여대생의 2/3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Schlater(1969, 1)는 가족가치의 강도는 세대간에는 부모중 한쪽만 있는 경우, 즉 편부나 편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가치의 집약성이 크다고 했으며, Rosen(1968, 318)은 모친으로부터 아들에게 전달되는 가치의 정도는 하루보다는 중류의 가정에서, 대가족보다는 중소가족에서 높다고 한다.

3) 성 별

가족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을 밝힌 선행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근대적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성이 지배적인 남성집단에 비해 종속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권리와 이익에서 더 열등감을 경험하는데 반해, 남성은 지금 그대로의 구조적 전통적인 성차를 유지하려는데 집착한다는 Scanzoni(1975, 25)의 견해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Tomeh(1978, 344)는 성역할 태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항상 근대적인데 남성은 어머니나 아내상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분리하여 생각하려는 태도를 여성처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Garcia(1982, 863-875)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닌 사람은 심리적인 양성(psychological androgynous)을 지닌 사람보다 전통적인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4) 생활수준

이정우(1979, 63), 최정혜(1981, 58-59)의 연구에서 상류층이 근대적 가치의식을 보인것으로 나타났고, 김 윤(1983, 26-59)은 서울과 안동의 주부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서울에서만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자(1985, 151)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근대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전영자(1986, 102)는 가정의 수입정도가 높을수록 근대적 가치의식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5) 거주지역

최재석(1965, 182-188)의 연구에서 도시 가족에 있어 친자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관념에서 부부중심의 근대적 가족관념으로의 경향을 밝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천세(1980, 65-74)는 도시화됨에 따라 근대화 되어감을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이정우(1979, 62-64)는 대도시보다 소도시 주부가 전통적 가치의식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6) 기 타

박진숙(1984, 134-143)의 연구에서 부모부양 의식에 있어 장남이 단연 전통성을 보이고, 남편의 출생순위에 따른 가치의식의 차이를 검토한 김 윤(1983, 26-42)의 연구에서도 장남의 경우 전통성을 나타내었다.

동해안 주부의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을 밝힌 김명자(1980, 468)의 연구에서 기독교, 천주교를 믿는 집단이 불교나 기타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근대적으로 나타났고 김 윤(1983, 65-67), 박진숙(1984, 134-146)의 연구에서도 유교, 불교를 믿는 집단이 전통성을 나타내었다.

가족형태가 가족구성원의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 연구(김명자 1980, 박진숙 1984, 정현희·유영주 1978, 최정혜 1981, 전영자 1986)중 정현희·유영주(1978, 31-47)의 연구와 최정혜(1981, 18-56)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영자의 연구에서는 결혼의식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및 가설

이상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 및 이에 따르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남·녀 대학생과 남·녀 기성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각 영역에서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

〈가설 1〉 : 대학생의 영역별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남·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기성세대의 영역별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남·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기성세대와 대학생 세대의 영역별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 기성세대 남자와 남자 대학생의 영역별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 기성세대 여자와 여자 대학생의 영역별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 기성세대와 대학생 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이들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상의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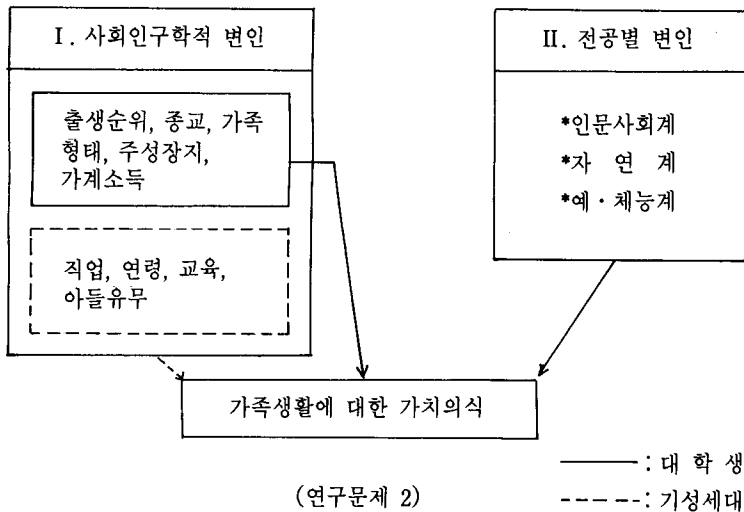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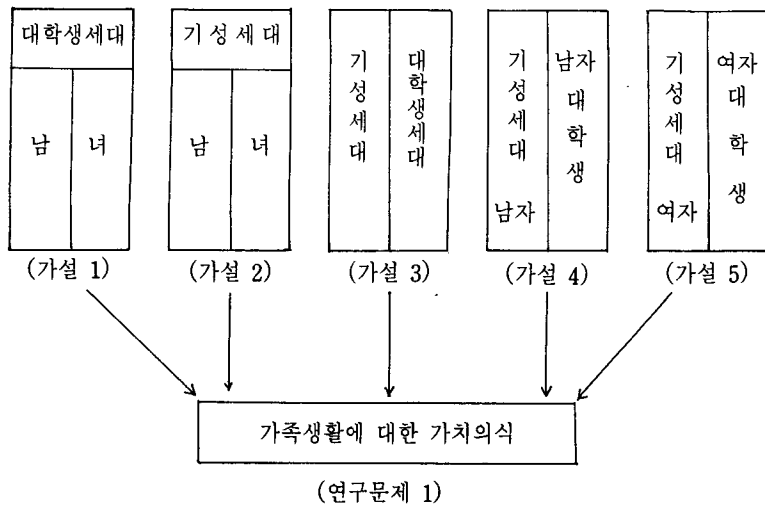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2.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측정도구의 작성

1) 척도의 구성

이제까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을 규명한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주로 命名척도이다. 가족생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이와같은 척도를 사용하면 개별문항에 대한 가치의식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옥선화 1986, 144)

또 이연주(1984, 101-112)의 연구에서 가족에 대한

가치의식에 포함된 여러 측면을 요인분석한 결과 이들은 서로 다른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는 보다 정교한 측정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작성을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을 나타내 주리라 판단되는 48문항을 선정하여 구성된 假척도를 대학생과 기성세대 1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자료는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통하여 검토되어 최종문항이 선정되었다. 먼저 48개 문항이 어떠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varimax 회전 방식에 의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eigen 값이 1.0 이상인 9개 요인 33문항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분류는 요인 적재치 .50이상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음에 48개 각 문항과 전체 총점과의 상관계수를 측정하여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12문항(11, 20, 26, 27, 28, 29, 30, 38, 40, 44, 45, 46)은 제외시키고 36문항이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요인 8, 9에 속한 4개 문항이 제외되었으므로 요인 8, 9도 기각되었다. 이와같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척도에 대한 개별문항의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36개 개별문항과 전체 총점과의 상관계수는 .24~.70이다.*

36문항중 전체 총점과의 상관계수가 .40이상인 문항은 23개로 전체문항의 62%를 차지하여 아주 좋은 문항이 될 수 있는 기준치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36개 문항중에서 앞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아 제외된 문항은 7개로(13, 25, 32, 35, 37, 39, 43) 요인분석과 문항분석 결과를 모두 만족시키는 문항은 29개였으나 요인 7에 해당되는 문항은 한 문항에 불과하였으므로 기각하고 최종 28개 문항을 선정하여 요인 1은 효도에 대한 의식, 요인 2는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 요인 3은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의식, 요인 4는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 요인 5는 친족에 대한 의식, 요인 6은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6가지 영역을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이다, 약간 반대, 매우 반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질문의 방향은 전통성을 지향하는 것과 근대성을 지향하는 것이 섞여 있고, 3점을 기준으로 전통성과 근대성으로 구분되며 1점에 가까울수록 전통적 가치의식을, 5점에 가까울수록 근대적 가치의식을 나타낸다.

예비조사시 사용한 48문항에 대한 요인 행렬표 및 각 문항과 전체 총점과의 상관계수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2)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 검증

척도의 문항과 내적 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처리

예비조사는 88.6.1~6.8일에 걸쳐 대학생과 기성세대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본조사용 측정도구를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대학생인 경우 인문·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를 비율에 맞추어 서울시 소재 12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외국어대, 한양대, 홍익대) 690명과, 기성세대인 경우 대학생 자녀가 있거나, 혹은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있는 부, 모이고 각각은 서로 부부가 아닌 570명등 총 1260명을 대상으로 88.6.20~7.20일에 걸쳐 실시하여 1050부 정도가 회수되었는데 이중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920부를 연구 분석자료로 삼았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3과 같다. 자료 처리는 숙명여대 전자계산소에서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예비조사시 측정도구 작성을 위한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실시하였고, 빈도, 백분율, 산술평균을 구한뒤, t-test,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남·녀 대학생과 남·녀 기성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가설 1〉: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남·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남·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P < .001$) 청소년을 대상

* Ahmann, Glock(1967)은 개별 문항과 전체 총점과의 상관 계수가 .40 이상인 문항은 아주 양호하고, .40~.20이면 만족스러우며, .20~.00이면 불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1. 예비 조사시 사용한 48문항에 대한 요인행렬표 및 각 문항과 전체총점과의 상관계수 (N=110)

문항 번호	내 용	Factor1 효도에 대한 의식	Factor2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
1	가정에서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하기 어렵다.	.73	-.00
2	자식은 성인이 된후에도 매사를 부모와 의논하여 실행해야 한다.	.74	.00
3	부모가 병환중일때는 오락이나 여행등은 일체 삼가해야 한다.	.53	.14
4	부모가 시키는 일은 다소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50	.22
5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출세하는 것이다.	.64	.13
6	부모에 대한 효가 부부애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61	.22
7	제사의 의식은 우리 고유의 전통이니 계속지키는 것이 좋다.	.37	.73
8	조상의 제사를 4대조까지 지내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이다.	.45	.55
9	부모가 돌아가신후 제사를 성대히 지내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이다.	.06	.59
10	조상에 대한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한다.	.01	.70
12	남편은 가족부양을 위한 직업활동을 하고 부인은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한다.	-.17	-.00
14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	.18	.05
15	가족이 해야 할 일을 나누어 책임맡을때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을 다르게 해야 한다.	-.03	.08
17	재산상속은 장남에게 특별히 많이 주어야 한다.	.12	.14
18	상속때의 재산분배에서는 딸에게는 주지 않고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옳다.	.17	.14
19	여자의 상속분이 남자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10	.03
31	여자가 잘되는 길은 남편을 잘 섬겨서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7	-.18
34	남자는 부양가족이 있으므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01	.15
36	가정생활에서 부인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16	.14
21	한 가정의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엄격하게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13	.02
22	가장으로서 남편은 가정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	.07	-.02
23	아버지는 집안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 위치가 확고해야 한다.	.11	.02
24	한 가정의 아버지는 가정의 중요한 일을 주로 결정, 처리해야 한다.	-.14	.03
33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집단에서 남자가 최고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07	.11

Factor3 남·녀성역할에 대한 의식	Factor4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	Factor5 친족에 대한 의식	Factor6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	Factor7	Factor8	Factor9	Communality	각문항과전체 총점과의 상관계수
.09	.02	.12	-.00	.07	-.02	.04	.59	.40
.04	-.00	.10	-.12	.05	-.07	-.08	.62	.35
.02	.02	.31	-.02	.12	-.15	.08	.53	.34
.33	-.07	.08	-.08	-.05	-.10	-.08	.50	.43
.10	.19	-.05	.16	.04	-.11	-.13	.61	.47
.20	.02	.01	-.21	-.15	-.04	-.22	.59	.38
.23	-.11	.09	-.00	-.03	-.06	-.08	.78	.46
.38	-.04	-.04	-.05	.10	-.19	-.10	.79	.58
.06	.09	-.03	-.20	.21	.05	.00	.57	.35
.00	.13	.00	.09	.02	.20	.07	.62	.30
.67	.18	-.01	.16	-.00	.04	-.11	.57	.61
.81	.07	.06	.10	.02	.03	-.01	.74	.70
.62	.26	.08	-.02	.06	-.14	.08	.51	.57
.52	.07	.07	.03	.26	-.24	.05	.53	.50
.55	-.18	.02	-.04	.41	.30	.05	.78	.52
.64	.09	.06	.00	.07	-.04	.27	.55	.58
.53	.19	-.06	.20	.10	.11	-.08	.82	.57
.52	.24	.05	.09	-.01	-.02	.11	.53	.57
.55	.02	.14	-.06	.08	-.43	-.26	.78	.55
.10	.55	-.04	.04	.18	-.16	.06	.56	.45
.30	.69	-.00	.09	.11	.25	-.04	.75	.51
.08	.64	.06	.15	.14	.09	.08	.52	.42
.30	.58	-.06	.05	-.02	.19	.16	.55	.37
.26	.50	.04	.34	-.02	.07	.20	.61	.52

표 1. 예비 조사시 사용한 48문항에 대한 요인행렬표 및 각 문항과 전체총점과의 상관계수 (N=110)

문항 번호	내 용	Factor1 효도에 대한 의식	Factor2 조상승배에 대한 의식
41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친정보다 시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7	.12
42	어려운 일이 생겼을때 이웃이나 친구보다는 친척이 더 큰 의지가 된다.	.00	-.06
47	여자가 보다 나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11	-.09
48	여자가 보다 나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	.10	.00
16	재산은 사회로 환원하는 것보다는 자식에서 물려 주어야 한다.	.12	.06
44*	오늘날의 핵가족제도는 여러가지면에서 부작용이 많다.	-.24	.04
45*	대가족 형태는 어른의 경험과 자손의 현실감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이다.	-.16	.10
27*	부모님을 자식이 모시지 않고 사회나 국가가 부양할 수도 있다.	-.02	-.08
29*	장남이라고 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부양책임을 가질 필요는 없다.	-.17	-.00
11*	청소, 요리, 바느질 등을 아들도 배울 필요가 있다.	-.26	-.02
△13	남편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를 보는일, 요리, 청소, 빨래등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	-.01	-.02
20*	재산상속의 시기는 일체를 사망후에 하는 것이 좋다.	.05	.35
△25	아버지의 반찬은 자녀들 것보다 더 좋게 차려져야 한다.	-.03	.02
26*	부모님의 노후는 장남이 책임을 져야 한다.	-.23	.07
28*	부모님께서 아파트에서 살기 싫어하시면 원하시는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	-.07	.08
30*	부모님의 생활 형편이 넉넉하던지 그렇지 못하던지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한다.	.12	.07
△32	행복한 여자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생활이 안정된 남편을 만나 편안하게 사는 여자이다.	.16	.11
△35	결혼한 여자라도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면 직장생활을 할 기회가 남자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37	.06
△37	여자는 직장생활을 해봐야 장래성이 없으므로 아예 취직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현명하다.	.14	.12
38*	친척간에는 자주 만나 가족과 같이 다정하게 지내야 한다.	.00	.01
△39	분가해서 살 경우 친정부모보다 시부모와 가까이 사는게 마땅하다.	.19	.09
40*	시가족, 친정쪽 모두에 어려운 친척이 있다면 시가족 친척을 먼저 도와야 한다.	.26	-.03
△43	가족은 (조)부모, 부부,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족이 좋다.	.12	.10
46*	여러세대로 이루어지는 가족형태는 갈등의 소지가 많다.	-.08	-.11
eigen value		5.00	1.62
total variance(%)		17.2	5.6

*은 분항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임.

△은 요인 부하량이 낮아 제외된 문항임.

◇문항번호는 요인분석된 결과가 명확히 나타나게 하기 위한 구성으로 배열하였음.

Factor3 남·녀성역할에 대한 의식	Factor4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	Factor5 친족에 대한 의식	Factor6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	Factor7	Factor8	Factor9	Communality	각문항과전체 총점과의 상관계수
.33	.13	.67	-.17	-.02	-.06	-.07	.74	.44
-.00	-.07	.63	.14	.11	-.06	-.12	.55	.24
.11	-.11	-.05	.78	.07	.02	.20	.74	.33
.11	.26	.06	.77	-.13	.13	.09	.76	.30
.12	.02	-.01	-.03	.69	.12	-.02	.54	.28
-.16	.15	-.02	.26	-.06	.56	.07	.67	-.58
-.17	.26	-.00	.15	-.18	.60	-.00	.54	.055
-.18	.13	-.23	.18	.04	.13	.56	.52	-.023
.21	.08	-.07	.25	-.17	.06	.57	.52	.16
.32	.21	-.01	-.02	.16	.11	.06	.53	.21
.48	.02	.15	.05	.00	-.12	-.01	.66	.39
-.13	.31	.11	-.12	.39	-.07	-.19	.50	.28
.15	.12	.20	.06	.39	-.04	.04	.35	.35
.16	.25	.14	.07	.10	.09	.34	.48	.28
-.04	.09	.01	-.03	.19	.13	.10	.62	.12
.15	.03	.01	-.07	.11	.06	.04	.59	.30
.20	.27	.19	-.14	.22	-.32	-.00	.55	.48
.44	-.02	.30	-.03	.10	-.38	-.09	.78	.56
.37	.13	.00	.18	.08	-.14	-.28	.58	.49
.09	.01	.11	.13	.02	.16	.03	.55	.22
.39	.11	.31	-.20	.04	-.08	.14	.55	.40
.26	.14	.21	-.06	.04	-.02	-.03	.54	.27
.22	-.01	.04	-.09	.04	.10	-.03	.54	.39
-.20	.17	-.09	.12	.08	.27	.09	.62	-.087
8.78	2.72	1.18	1.47	1.42	1.78	1.16		
30.1	9.3	4.1	5.1	4.9	6.1	4.0	89.8	

표 2. 설문지문항과 신뢰도

종 속 변 인	영역별가치의식	문 항 번 호	문항수	Cronbach α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1. 효도에 대한의식	1, 2, 3, 4, 5, 6	6	.88
	2. 조상숭배에 대한의식	7, 8, 9, 10	4	.87
	3. 남·녀성역할에 대한의식	12, 14, 15, 17, 18, 19, 31, 34, 36	9	.84
	4. 가부장권에 대한의식	21, 22, 23, 24, 33	5	.84
	5. 친족에 대한의식	41, 42	2	.88
	6. 대안적삶의 양식에 대한의식	47, 48	2	.90
전 체			28	.88

* 47, 48 문항은 recode하여 분석하였음

으로 한 근대성에 관한 연구에서 性이 근대성에 영향을 주는 매우 강력한 변인임을 밝힌 장상희(1982)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즉 남자 대학생은 전통성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자 대학생은 전통성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은 변화를 구하려 하나, 남성은 전통적 구조에 더욱 애착을 갖는다는 선행연구(김명자 1985; 이연주 1980)와 일치하고 있다. 효도에 대한 의식에서 두집단 모두 전통적 가치지향을 보였으나 남·녀별로는 여학생이 좀 더 근대적 경향을 띠었다. 그러므로 효는 우리의 생활규범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선행연구(김명자 1980, 1985)와 일치하고 있다.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3.17), 남·녀성역할에 대한 의식(4.01),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3.12)등에서 여자 대학생의 의식이 뚜렷이($P < .001$) 근대적 경향을 보였고, 친족에 대한 의식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에서 여학생이 근대성을 나타내리라 예측했으나 전통성(2.67)을 보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연주(1984)의 연구결과에서 여성이 보다 근대적으로 나타난것과 비교해 볼 때 여자대학생은 결혼생활, 가족생활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가설 2>: 기성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남·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성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있다. 표 5에 의하면 남·녀 모두 전통성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두집단간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아,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가치의식의 지향성을 연구한 김명자(1985)의 연구에서 여성이 전체적으로 근대적 방향을 보인 결과와는 일치하고 있지 않다.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의식에서 남·녀 모두 전통적 지향을 하고 있으나 의미있는 차이($P < .001$)를 보여 여자가 좀 더 근대적 경향을 띠었는데, 이는 기성세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여성도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며 직업 갖기를 원하고 가정의 재정적인 책임이나 가사 및 그 밖의 가정내 역할은 책임을 남편과 똑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근대적 성역할을 추구하는 여성의개념(Parelius 1975, 147)보다는 Meier, Lipmen-Blumen, Bayer등에 의해 사용되어온 “여성도 가정에 속한다”는 여성역할의 전통주의 개념에서 탈피하려는 의식의 경향으로 해석된다(Tomeh 1978, 341).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에서는 의미있는 차이($P < .05$)를 나타내고, 남·녀 모두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여성이 보다 근대적으로 나타난 이연주(198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본연구에서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이 여성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것과 아이를 갖지 않을수도 있다는 사실에 남성이 감정移入되었다고 전제할때, 남성은 현재의 생활에 불만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충동과 함께,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구속이 싫은, 가급적이면 채무를 연장하고자 하는 Moratorium심리(이시형 1985, 171-174)에의 강한 향수를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남·녀 모두 실제 행동주의 측면보다는 자신들이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기대, 즉 관념이 앞선 결과로 해석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성격

기성세대(N ₁ =340)				대 학생(N ₂ =580)			
배경변수	내 용	빈도	백분율	배경변수	내 용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129	37.9%	성 별	남	324	55.9%
	녀	210	61.8%		녀	255	44%
연 령	45세이하	82	24.1%				
	46~50세	88	25.9%				
	51~55세	98	28.8%				
	56세이상	72	21.2%				
출생순위	첫째인 경우	176	52.4%	출생순위	첫째인 경우	290	50%
	첫째가 아닌 경우	164	47.6%		첫째가 아닌 경우	290	50%
종 교	기독교	69	20.3%	종 교	기독교	126	21.7%
	불 교	111	32.6%		불 교	126	21.7%
	천주교	58	17.1%		천주교	67	11.6%
	기 타	14	4.1%		기 타	5	0.9%
	없음	88	25.9%		없음	252	43.4%
가족형태	핵가족	253	75.3%	가족형태	핵가족	454	78.3%
	확대가족	84	22.4%		확대가족	123	21.2%
주성장지	대도시	70	20.6%	주성장지	대도시	361	62.2%
	중·소도시	101	29.7%		중·소도시	120	20.7%
	읍·면이하	166	48.6%		읍·면이하	98	16.9%
가계소득	40만원이하	39	12%	가계소득	40만원이하	90	15.5%
	41~60만원	79	24.2%		41~60만원	121	20.9%
	61~80만원	81	22.9%		61~80만원	115	19.9%
	81~100만원	85	24.8%		81~100만원	83	14.3%
	100만원이상	48	15.3%		100만원이상	96	16.5%
아들유무	유	304	90.6%	전공분야	인문·사회계	260	44.8%
	무	36	9.4%		자연계	150	25.9%
교육수준 (남자)	중졸이하	23	17%		예·체능계	170	29.3%
	고졸	40	31%				
	대중퇴 및 대졸이상	64	49%				
교육수준 (여자)	중졸이하	66	31.4%				
	고졸	98	46%				
	대중퇴 및 대졸이상	44	21%				
직 업 (남자)	무직, 은퇴 및 기타	21	16%				
	숙련직, 자영업 및 사무직	56	44%				
	전문직	52	40%				
직 업 (여자)	가정주부	168	78.6%				
	숙련직, 자영업 및 사무직	20	11.9%				
	전문직	16	9.1%				

*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표 4. 남·녀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일반적 경향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영역	남(N ₁ =324)		여(N ₂ =255)		남 : 여 (t-값)
	\bar{X}	SD	\bar{X}	SD	
1. 효도에 대한 의식	2.51	.74	2.84	.71	- 5.42***
2.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	2.78	1.04	3.17	.98	- 4.62***
3. 남·녀성역할에 대한 의식	2.96	.85	4.01	.79	-15.28***
4.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	2.21	.93	3.12	1.07	- 10.73***
5. 친족에 대한 의식	3.25	.90	3.35	.90	- 1.32
6.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	3.48	1.20	2.67	1.11	8.39***
계	2.94	.57	3.28	.57	-6.97***

*** P<.001

표 5. 기성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일반적 경향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영역	기성세대남자 (N ₁ =129)		기성세대여자 (N ₂ =210)		남 : 여 (t-값)
	\bar{X}	SD	\bar{X}	SD	
1. 효도에 대한 의식	2.34	.77	2.39	.72	-0.66
2.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	2.64	1.07	2.70	1.02	-0.49
3. 남·녀성역할에 대한 의식	2.60	.71	2.93	.79	-4.01***
4.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	1.94	.79	2.12	.94	-1.96
5. 친족에 대한 의식	2.65	.99	2.53	.94	1.05
6.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	3.85	1.11	3.55	1.15	2.33*
계	2.74	.55	2.79	.55	0.98

*** P<.001, * P<.05

표 6. 기성세대와 대학생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영역	기성세대 (N ₁ =310)		대 학생 (N ₂ =580)		기성세대 : 대학생 (t-값)
	\bar{X}	SD	\bar{X}	SD	
1. 효도에 대한 의식	2.37	.74	2.65	.75	- 5.53***
2.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	2.67	1.03	2.94	1.04	- 3.78***
3. 남·녀성역할에 대한 의식	2.81	.78	3.42	.98	-10.47***
4.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	2.05	.89	2.61	1.10	- 8.37***
5. 친족에 대한 의식	2.58	.96	3.29	.89	-11.26***
6.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	3.67	1.14	3.12	1.23	6.71***
계	2.77	.54	3.09	.60	- 8.13***

*** P<.001

표 7. 기성세대남자와 남자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영역	기성세대남자 (N ₁ =129)		남자대학생 (N ₂ =324)		기성세대남자 : 남자대학생 (t-값)
	\bar{X}	SD	\bar{X}	SD	
1. 효도에 대한 의식	2.35	.78	2.51	.74	-1.98*
2.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	2.67	1.08	2.78	1.04	-1.01
3. 남·녀성역할에 대한 의식	2.61	.72	2.96	.85	-4.49***
4.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	1.95	.79	2.22	.94	-3.15***
5. 친족에 대한 의식	2.66	.99	3.26	.90	-6.17***
6.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	3.82	1.13	3.48	1.20	-2.82***
계	2.75	.55	2.95	.58	-3.50***

*** P<.001, ** P<.01, * P<.05

표 8. 기성세대여자와 여자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영역	기성세대여자 (N ₁ =210)		여자대학생 (N ₂ =255)		기성세대여자 : 여자대학생 (t-값)
	\bar{X}	SD	\bar{X}	SD	
1. 효도에 대한 의식	2.39	.72	2.83	.70	-6.76***
2.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	2.69	1.01	3.17	.98	-5.23***
3. 남·녀성역할에 대한 의식	2.93	.79	4.00	.79	-14.60***
4.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	2.11	.94	3.11	1.09	-10.65***
5. 친족에 대한 의식	2.54	.94	3.35	.89	-9.47***
6.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	3.56	1.15	2.68	1.12	8.47***
계	2.79	.55	3.28	.58	-9.32***

*** P<.001

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가정내의 역할에서는 대부분 전통적이고 거시적인 사회변화 문제에는 가장 근대적이다(Osmond & Patricia 1975, 744)고 한 견해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가설 3> : 기성세대와 대학생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을 비교한 것이 표 6이다.

표 6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P<.001) 기성세대는 전통성(2.77)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학생 세대는 근대성(3.09)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도에 대한 의식,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 가부장

권에 대한 의식등에서 의미있는 차이(P<.001)를 보였으나, 기성세대와 대학생 모두 전통적 가치지향을 하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와 대학생세대의 가치전달이 이루어진 것이라 해석할때, 이는 사회적인 힘이 특정가치나 행동을 촉진시킬때 세대간 전달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 Troll과 Bengston(1979)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한다.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의식(3.42), 친족에 대한 의식(3.29)등에서 대학생 세대가 뚜렷이(P<.001) 근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문적 기관에 의한 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집단이므로, 그와 수반되어 부모나 친척보다는 동료집단의 영향이 크다고 한 Troll과 Bengston(1979)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가설 3>은 긍정 되었다.

<가설 4> : 기성세대 남자와 남자 대학생의 가족

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성세대 남자와 남자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을 비교한 것이 표 7이다. 표 7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두 세대 모두 전통적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두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P < .001$) 남자 대학생이 보다 근대적 경향을 띠었다.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의식,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 친족에 대한 의식등에서 의미있는 차이($P < .001$)를 나타내었으나 남자 대학생은 이중 친족에 대한 의식을 제외한 각 영역에서 전통성을 고수하고 있어 남성에게 있어서 세대차이 보다는 성역할 사회화(sex-role socialization)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사회구조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동질의 집단 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듯하다. 따라서 <가설 4>는 부분적으로 긍정 되었다.

<가설 5> : 기성세대 여자와 여자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8은 기성세대 여자와 여자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을 비교한 것이다. 표 8에 의하면 각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는데 효도에 대한 의식에서는 두세대 모두 전통성을 나타내었으나 두 집단중 여자대학생이 좀 더 근대적 경향을 띠었다.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3.17),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의식(4.00),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3.11), 친족에 대한 의식(3.35)등에서 여자 대학생의 의식이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에서는 기성세대 여자는 근대성을, 여자대학생은 전통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성세대 여자는 <가설 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념이 앞선 결과로 해석되며,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의식에서 뚜렷이 근대적 지향을 나타낸 것과 비교할 때, 모순이 있는 듯이 보이나 Scanzoni (1976, 39)는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도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에 비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아이를 적게 갖기는 하지만 어머니라는 성역할의 핵심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Parelius(1975, 151)는 대다수의 여대생들은 자신의 직업을 남편의 직업과 똑같이 중요하고 가정에서의 재정적인 책임을 남편과 똑같이 져야하며 남편으로부터 가사를 도움받기를 기대한다고 한 연구와 관

련시켜 볼 때 남·녀 성역할 자체를 결혼의 범주내에 국한시켜, 역할수행의 근대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결혼을 함으로써 사회적 성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하에서 여대생들은 결혼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을 하는 가족생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기성세대 여자와 여자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P < .001$), 기성세대 여자는 전통성을 고수하고(2.79), 여자 대학생은 근대성(3.28)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성에 따른 사회화의 영향보다는 세대간의 차이가 더 큰것으로 나타나, 여자 대학생에게 있어서는 성과 세대의 이중적 부담이 내포되어 있어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더 클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가설 5>는 긍정되었다.

2.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관련변인들의 독립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중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 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중요 변인으로, 종속변인은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총점이며, 독립변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설정하여 기성세대와 대학생 공통으로 성별, 출생순위, 종교 가족형태, 주성장지, 가계소득을, 기성세대는 이외에 연령, 교육수준, 아들유무, 직업이 추가 되었고 대학생 세대는 전공별 변인이 추가되었다.

이들 독립변인중 명목척도(nominal measurement)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였다.* 출생순위, 주성장지, 가계소득, 교육수준, 직업등은 원점수를 주어 적용시켰고, 이중 주성장지는 읍·면이하~대도시까지를 1점~3점으로 recode시켜서 합산 하였다. 또 직업은 변인의 성격상 단순직에서 전문직의 순으로 1점~8점까지 주어 적용시켰고, 연령은 만연령을 적용시키었다.

기성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기독교,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기성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 인	R ²	RSQ Change	B	β	F
기 독 교	.0332	.0332	.221	.162	7.782*
교 육 수 준	.0425	.0093	.591	.146	5.012*

* P<.05

표 10. 대학생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 인	R ²	RSQ Change	B	β	F
성 별	.0759	.0759	.330	.277	43.522*
예·체 능 계	.093	.0173	-.900	-.068	1.909*
불 교	.102	.0096	-.147	-.102	5.658*
가 계 소 득	.109	.0065	-.188	-.100	5.979*
주 성 장 지	.117	.0083	.719	.093	4.867*

* P<.05

즉 기독교를 믿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대적 가치지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R²=3.32%), 교육수준(R²=0.93%) 두 변인의 설명력은 4.25%로 기성세대에 있어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성세대에 있어서는 사회심리적 변인 및 사회경제적 배경변인, 신체적·생물학적 변인, 상호작용 변인등이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에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성별, 예·체능계, 불교, 가계소득, 주성장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표 10), 남성보다는 여성이 근대성을 나타내었고, 예·체능계를 전공할수록 불교를 믿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전통성을 나타내었고, 대도시에서 성장할수록 근대적 지향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1.7%로 기성세대보다는 설명력이 조금 더 큰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또 다른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드러내 준다.

따라서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연구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정보다는 사회심리적 변인 및 사회경제적 배경변인, 신체적·생물학적 변인, 상호작용 변인등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諸요인을 포괄하는 모델의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과도기에 처해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이 어느정도 변용되어 가고 있으며, 세대간 가치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가족생활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에 유용한 시사를 함과 동시에 이에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치의식 척도의 표준화 문제, 연구자료의 표집범위가 좁았다는 점과 조사대상자의 행동의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태도만을 문제 삼았다는 점과 세대간 비교에 관한 선행 연구 자료 빈약등의 제한점들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

- * ①성별 : 남자 0점, 여자 1점
- ②가족형태 : 핵가족 0점, 대가족 1점
- ③아들유무 : 아들없음 0점, 아들있음 1점
- ④종교 : ㉠기독교인 경우 1점, 아닌 경우 0점 ㉡천주교인 경우 1점, 아닌 경우 0점 ㉢불교인 경우 1점, 아닌 경우 0점 ㉣기타 종교인 경우 1점, 아닌 경우 0점
- ⑤전공 : ㉤인문사회계인 경우 1점, 아닌 경우 0점 ㉥자연계인 경우 1점, 아닌 경우 0점 ㉦예·체능계인 경우 1점, 아닌 경우 0점

을 내릴 수 있다.

1) 48문항으로 구성된 假척도로 예비조사를 하여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1은 효도에 대한 의식, 요인 2는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 요인 3은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의식, 요인 4는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 요인 5는 친족에 대한 의식, 요인 6은 대안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의식으로 나타나, 이것을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2)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 남자 대학생은 전통성을 여자대학생은 근대성을 보였으며, 영역별로는 남·녀성역할에 대한 의식,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등에서 여자 대학생의 의식이 뚜렷이 근대적 가치지향을 보였다.

3) 기성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남·녀 모두 전통성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두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기성세대와 대학생 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전체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기성세대는 전통성을 대학생세대는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도에 대한 의식, 조상숭배에 대한 의식, 가부장권에 대한 의식에서 두세대 모두 전통적 가치지향을 하고 있었고 두집단중 대학생세대가 좀더 근대적 경향을 띠었다.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의식, 친족에 대한 의식등에서 대학생세대가 뚜렷이 근대성을 보였다.

5) 기성세대 남자와 남자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두세대 모두 전통적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두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남자 대학생이 보다 근대적 경향을 띠었다.

6) 기성세대 여자와 여자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전체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기성세대 여자는 전통성을 여자대학생은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과 대조적으로 세대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7) 기성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기독교, 교육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를 믿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대적

가치지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설명력은 4.25%이었다. 대학생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근대성을 나타내었고 예·체능계를 전공할수록, 불교를 믿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전통성을 나타내었으며, 대도시에서 성장할수록 근대적 지향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1.7%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가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이 성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특히 남·녀 성역할의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어 남·녀간의 역할구분이 전통성을 띠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성취적, 직업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중 역할에 따른 긴장감을 보여준다. 특히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은 同時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남·녀간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차이가 뚜렷한 것과 관련하여,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과 가족생활”에 관한 교과과정의 필수 지정과 함께 생활관 교육의 확대를 통한 보다 실제적인 교육적 접근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기성세대와 대학생세대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특히 여성에 있어서 세대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생활에서 특히 고부간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를 위해 가족 집단내에서의 충분한 의사소통 훈련과 함께 사회적으로 두세대를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적극적이고도 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개인의 자각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측면에서의 제반 사실들을 보다 명확하게 일반화하기 위하여는 수량적 접근(quantitative method)과 함께 나타나는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을 결정한 질적인 연구(qualitative research)가 요구된다.

4)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의 여러 영역에 대한 세대간 가치의식을 비교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심리적 배경 변인, 상호작용변인들을 포함시켜 각 영역별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실

시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신 : 어머니와 딸의 가치관 및 그 실행과 전달 관계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2
- 2) 김명자 : 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식 변용에 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8 : 453-469, 1980
- 3) 김명자 :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24 : 139-166, 1985
- 4) 김 윤 :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3
- 5) 김태길 :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 문음사, 1982
- 6) 김혜식 : SPSS. 서울 : 박영사, 1987
- 7) 박숙자 :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78
- 8) 박영신 : 한국사회발전론 서설-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사회학회편, 현대사회연구소, 1984
- 9) 박진숙 :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 129-147, 1984
- 10) 변화순 : 여성의 취업과 성역할 태도와와의 관계. 연대 석사논문, 1980
- 11) 송준호 : 한국에 있어서의 가계기록의 역사와 그 해석. 역사학보 87 : 99-143, 1986
- 12) 옥선화 : 가족주의 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3) : 143-153, 1986
- 13) 이광규 : 한국가족의 구조 분석. 서울 : 일지사, 1984
- 14) 이시형 : 지혜롭게 사는 여성. 서울 : 집현전, 1985
- 15) 이연주 :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태도와 자아 정체감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논문, 1980
- 16) 이연주 : 한국 가족의 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 101-112, 1984
- 17) 이정숙 : 한국가족의 자녀훈육에 관한 세대별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77
- 18) 이정우 : 한국도시여성의 가치관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18 : 39-66, 1979
- 19) 이천세 : 가족관계에서의 가치관. 안동대학 논문집 2 : 65-74, 1980
- 20) 임희섭 :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 정음사, 1986
- 21) 장상희 : 공업화와 개인의 근대성. 한국사회학 16 : 89-122, 1982
- 22) 전영자 : 여고생 가족 가치관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6
- 23) 정원식 : 情意의 교육. 서울 : 배영사, 1969
- 24) 정현희 · 유영주 : 시간적 차원에서 본 가족의 가치관 연구. 서울대 가정대학 논문집 3 : 31-47, 1978
- 25) 조옥라 외 4인 : 가부장제의 이론적 고찰-가부장제와 한국사회-. 한국여성학회편, 1986
- 26) 조혜정 :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가부장제와 한국사회-. 한국여성학회편, 1986
- 27) 최정혜 : 도시 주부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81
- 28) 최재석 : 한국인의 가족의식의 변용. 진단학보 28 : 137-192, 1965
- 29) 최재석 : 한국가족 연구. 서울 : 일지사 1982
- 30) 최재석 : 한국가족 제도사 연구. 서울 : 일지사 1983
- 31) 황성모 : 지성과 근대화.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6
- 32) Black CE 저, 김덕규(역) : 근대화의 동태 분석. 서울 : 진영사 1976
- 33) Eisenstadt SN 저, 여정동, 김진균 공역 : 근대화-저항과 변동. 서울 : 탐구당 1981
- 34) Adams BN : *The family-a sociological interpretation-3rd ed.* Chicago : Rand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80
- 35) Ahmann JS & Glock MD : *Evaluating pupil growth, principles of tests and measurement.* 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67
- 36) Bender IE : *Changes in Religions Interest a Retest after 15 year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7 : 41-46, 1958
- 37) Bengston VL : *Generation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 358-371, 1975
- 38) Brogen D & Kutner NG :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A Normati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6(Feb.)

- 39) Bossard JH & Boll ES : *The Sociology of child development*. Tokyo : Harper-International Edition, 1966
- 40) Furstenberg FF : *The Transmission of Mobility Orientation in the Family*. *Social Forces* 49 : 595-603, 1971
- 41) Garcia LT : *Sex-Role Orientation and Stereotypes about Male-Female Sexuality*. *Sex-Roles* : 863-875, 1982
- 42) Kelly EL : *Consistency of the Adult Personality*. *American Psychologist* 10 : 659-681, 1955
- 43) Osmond Marie W & Patricia YM : *Sex and Sexism-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 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5(Nov.)
- 44) Parelius AP : *Emerging Sex-Role Attitudes, Expectation and Strains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5(Feb.)
- 45) Rosen BC : *Family structure and value transmission*. *Source Book in Marriage and the Family 3rd ed.*, 1968
- 46) Scanzoni J : *Sex-roles, life styles and child bearing*. New York : The Free Press, 1975
- 47) Scanzoni J : *Sex-role Change and Influences on Birth Inten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6(Feb.)
- 48) Schlater JD : *Investigating Value Underlying Decisions*. *Michigan Agr Exp Sta Research Bull* 23 May, 1969
- 49) Tomeh AK : *Sex-Role Orientation-An Analysis of Structural and Attitudinal Predi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8(May)
- 50) Troll L & Bengston V : *Generation in the family*. In Burr Reuben Hill Nye FI(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 The Free Press, 1979